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온기나눔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1. 27.(수) 12:00
(지 면) 2024. 11. 28.(목) 조간

전기난로,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해 화재 예방하세요!

- 전기난로와 전기장판,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 시 화재 위험 높아 주의 필요
- 전기난로 주변 종이·옷가지 등 정리 철저, 전기장판은 눌림 없이 사용해야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,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.

□ 최근 3년(2021~2023)간 전기난로*와 전기장판**으로 인해 총 1,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,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.

* 전기히터, 전기스토브 ** 전기장판, 전기담요, 전기방석류

< 최근 3년('21~'23)간 전기난로·장판 화재 발생 현황 > (단위: 건)

구 분	전기난로 화재		전기장판 화재	
		부주의		부주의
2021년	254	136	179	66
2022년	252	142	243	124
2023년	218	132	257	110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○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.

<최근 3년('21~'23)간 월별 전기난로·장판 화재 발생 현황> (단위: 건)

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○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(전기난로 57%, 전기장판 44%)가 가장 많았다.

-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,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(49%, 201건)했으며,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(83%, 250건)했다.
- 특히,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*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* 전기장판 기기 사용(설치) 부주의 화재 : '21년 54건 → '22년 102건 → '23년 94건

<최근 3년('21~'23)간 전기난로·장판 화재 발생 원인> (단위: 건, %)

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□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.

○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, 플러그와 전선,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.

○ 고온으로 사용할 때는 과열에 주의하고, 외출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.

- 시간설정(타이머) 기능을 활용해 중간중간 사용을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
○ 전기난로 주위에는 종이, 옷·수건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조심한다.

○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조심하고,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전기난로와 전기장판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”라며, “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한경심 (044-205-450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